

GS칼텍스 수소 밸류체인 구축 본격화

여수시·한국동서발전과 협약
여수산단에 1000억원 투자
15MW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 기술 실증·상용화도 협약



지난 17일 여수시청에서 허세홍 GS칼텍스 사장과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권오봉 여수시장이 '수소 경제활성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국가산단 대표 기업인 GS칼텍스가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과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본격화 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여수시·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지난 17일 여수시청에서 '수소경제활성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세홍 GS칼텍스 사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GS칼텍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과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상용화에 대한 협업을 본격화 한다. 여수시는 양사의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

협약에 따라 GS칼텍스는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1000억원을 투자해 여수산단 내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소 유휴부지에 15MW(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오는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후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공급받아 산소와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부산물로 순수한 물만 생산된다. 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 지역

5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가 만들어진다. 특히 LNG를 원료로 가동되는 기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와 달리 부생수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

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부생수소를 공급 받아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난 것은 물론 발전기에 장착된 미세필터를 통해 공기 중의 초미세먼지까지 정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장점이 크다. 이와 함께 CCU 기술 상용화를 통해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전문 기술로 모아(포집) 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동서발전과 여수시와의 투자협약을 통해 친환경 미래사업인 수소사업

밸류체인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소 관련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에 앞서 GS칼텍스는 지난 5월 한국가스공사와 '액화수소 생산 및 공급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과 충전소 구축, 수소 추출설비 구축, CCU 기술 실증 및 상용화 등 액화수소사업 밸류체인 구축을 본격화 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현대자동차와 함께 서울시 강동구에 수소충전소를 준공해 운영중이며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제주도에도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배출부서 실명제...순천시 쓰레기 27% 줄었다

79개 부서 100일 시행 성과

순천시가 올해 2월부터 100일간 시청 각 실과소와 읍면동 79개 부서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배출부서 실명제를 실시한 결과, 생활쓰레기를 26.8% 감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의 지난 2월 쓰레기 배출량 4469kg에서 100일이 지난 5월에는 3268kg를 기록해 1201kg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종량제봉투 배출부서 실명제 시행에 따라 각 실과소·읍면동에서는 책임자를 지정해 담당자 실명을 스티커에 기재해 종량제봉투를 배출했고, 이를 자원순환리더 활동가들이 매월 수시로 점검하는 등 계도활동을 벌였다.

100일간 실천 결과, 각 부서 실명제 스티커 부착 및 책임자 지정률은 100%를 기록했으며 분리배출함의 경우 캔·플라스틱·종이·유리병 등 4종에서 7종 이상을 설치해 혼합배출률은 시행 초기 31.6%에서 6.4%로 획기적으로 줄었다.

또 NO플라스틱 공간 조성을 추진하면서 청내 테이크아웃컵 반입과 일회용품 사용이 줄었고, 개인컵·텀블러 사용률은 99.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배출부서 실명제와 NO플라스틱 운동을 하반기에 소방서·교육청 등 유관기관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계도활동

고흥군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4개 단체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민관 합동 계도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주까지 진행된 계도활동은 식당, PC방,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 2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행위와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 고용업소 근로 권익 준수 등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에 중점을 두고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세 둔화로 점차 바깥 활동이 많아지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및 근절, 권익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고흥군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4개 단체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민관 합동 계도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지난 주까지 진행된 계도활동은 식당, PC방,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 2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행위와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 고용업소 근로 권익 준수 등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에 중점을 두고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구례군 계산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

20억원 들여 2023년까지 완료

구례군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농업 단지를 대상으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밭 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구례읍 계산리 일원의 계산지구다. 계산지구는 과수를 주로 생산하는 농업 단지이 나 그동안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가뭄에 노출되고 협소한 농로로 인해 농업생산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군은 전라남도에 신규 사업 대상지로 계산지구를 신청·선정하고, 2021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2021년 6월 현재 주민설명회 및 경작자들과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시계획을 진행 중이다.

군은 금년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에 토지보상 및 사업을 착공해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70ha면적을 대상으로 수원공(저류지) 2개소, 배수로 정비 3.62km, 농로 확포장 2.23km 등이 담겨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이 중 90%를 도비로 지원 받는다.

구례군은 밭 기반 정비사업에 적합한 대상지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 인공지능 기술로 치안사각지대 없앤다

CCTV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선별시스템 내달 운영

AI 기술로 관제사각지대 없앤다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로 관제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CCTV 관제 범위에 사람, 차량 등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관련 영상을 관제요원에게 표출해 주는 서비스다.

광양시는 17명의 관제요원이 1인당 CCTV 270여 대의 영상물을 육안으로 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니터링 공백과 집중력 감소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1차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해 야간에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과 초등학교 CCTV 340대에 우선 적용했다.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로 관제 효율성을 대폭 높인다.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광양시 제공>

또 올해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 중 CCTV 300대에 선별관제시스템을 추가 적용하고, 성별·색상·차종 등 조건별로 빠른 검색이 가능한 '고속검색시스템'도 도입해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삼식 광양시 안전총괄과장은 "관제요원, 경찰 등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치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쯤되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